



北 청소년축구대표팀 '따뜻한 남쪽' 제주시 전지훈련

북한의 청소년축구대표팀 선수들이 21일 오전 서귀포시 강창학종합경기장에서 첫번째 비공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 유니콘스 공중분해 위기

현대그룹서 운영자금 지원 거부 방침 밝혀

운영난에 빠진 현대 유니콘스가 현대그룹의 지원 거부로 공중분해 위기에 처했다.

현대그룹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그룹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야구단에 올 시즌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최종 입장을 전달해 온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현대야구단의 창단 주역으로 현정은 회장이 이끌고 있는 현대그룹이 전날 자원을 거부함에 따라 정몽구 회장의 현대차그룹은 물론 정몽운 회장의 현대해상화재도 자금을 지원할 명분을 상실해 유니콘스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하일성 KBO 사무총장은 "현대그룹이 지원을 거절해 올 시즌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어졌다. 야구단에 예약이 많은 정몽운 회장

은 어떤 식으로든지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야구장 펜스 광고 등 모든 마케팅을 총동원해도 제대로 굴러가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고 밝혔다.

또 김용휘 유니콘스 사장은 "이번 달 급여는 자체 예산으로 꾸려가지만 다음 달부터는 당장 운영비 조달이 막막한 상태다. 현대그룹이 도와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할 계획이다. 그대로 안되면 선수라도 트레이드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996년 고 정주영 회장이 출범시킨 현대 유니콘스 야구단은 고 정몽헌 회장이 구단주를 맡으면서 공격적인 운영으로 선수들을 스카우트해 지난 11년동안 내 차례나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르는 등 단숨에 명문구단으로 도약했다.

그러나 2001년 현대그룹의 경영난으로 현대전자가 하이닉스반도체로 넘어간 뒤 유니콘스는 자금난을 겪기 시작했다.

유니콘스 주식의 76.2%를 보유한 하이닉스는 여태까지 단 한 푼도 운영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에서 80억원, 현대그룹과 현대해상화재에서 40여억원씩을 조달해 구단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현대그룹은 지난 2005년 하이닉스반도체와 민사소송이 발생하자 이후 유니콘스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그들의 지원 중단으로 유니콘스가 비틀거리자 KBO는 올 초 농협중앙회에 구단 매각을 시도했으나 여분의 반대로 무산됐다.

KBO는 구단 매각 실패 이후 신상우 총재가 현정은 회장을 직접 만나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끝내 거절함에 따라 초비상이 걸린 셈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올 프로야구 이렇게 달라진다

한여름 한달간 서머리그 도입

오는 4월 6일 개막하는 2007년 프로야구가 관중 400만 돌파를 목표로 대변신한다.

지난 시즌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서머리그' 도입이다.

최고 승률팀엔 상금 2억원

한여름 무더위로 선수 의욕과 팬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초복(7월15일)과 말복(8월14일)까지 휴경기 한 달여를 서머리그로 정해 이 기간 최고 승률팀에 2억원의 독특한 상금을 준다.

또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최우수 선수(MVP)는 500만원, 우수 투수와 타자는 각각 상금 200만원을 덤으로 받는다.

서머리그는 팀당 23경기씩 총 92경기

가 치러지고 정규리그 시즌 성적에 반영된다.

평일 홈 경기 시간 조정에 구단 자율권을 준 점도 예년 시즌과 다르다.

삼성이 유일하게 평일 홈 경기를 오후 6시에 시작하기로 했고, 나머지 7개 구단은 작년과 같이 오후 6시30분을 유지한다.

또 지난 해는 일요일과 공휴일 경기 시작시간이 오후 2시였지만 올 해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모두 오후 5시로 통일했다.

토·일요일 경기는 오후 5시

정규리그 개막전은 작년보다 이틀 빠른 4월6일 삼성-두산(대구), 한화-SK(대전), 현대-롯데(수원), LG-KIA(잠실)전

으로 진행된다.

전체 경기 수는 지난 해처럼 팀당 18차전씩 총 504경기다.

올스타전은 7월17일 열리고 장소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시리즈에서 무승부가 나와 7차전을 넘기면 잠실구장에서 이동일 없이 하던 무승부 때 홈구장 구단이 홈팀이 되고 더그아웃은 정규리그 1위 팀이 선택권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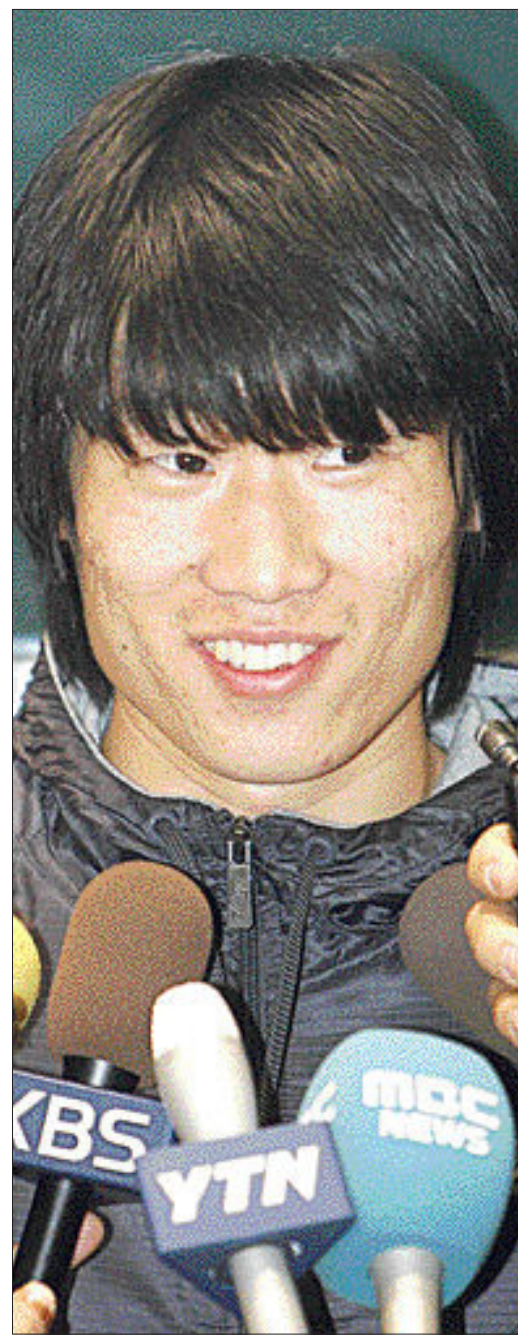
마운드 높이 10인치로 낮춰

또 신고 선수의 1군 등록일은 6월1일 이후로 한 달 앞당겼고 1차 지명 선수 인원은 종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했다.

2군 경기력 강화 차원에서 전체 경기 수를 지난 해 보다 늘려 남부리그는 총 180경기(팀당 90경기), 북부리그는 총 252경기(팀당 84경기)를 각각 소화한다.

이와 함께 스트라이크 존을 규칙에 명시된 어깨와 바지의 중간선부터 무릎 아래까지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 투수들이 새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마운드 높이가 종전 13인치에서 10인치로 낮아지고 공인구도 종량과 재질, 반발 계수가 국제 규격에 가깝게 조정돼 경기력에 미묘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

■ 박지성 우루과이전(24일) 참가위해 귀국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프로팀이든 대표팀이든 모든 경기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한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오는 2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우루과이와 축구대표팀 친선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21일 낮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박지성의 귀국은 지난해 추석 연휴 때 일시 귀국했다 10월 초 영국으로 돌아간 뒤 약 6개월 만이다.

지난해 리그 경기에서 발목 부상으로 3개월 여 공백이 있었던 터라 국내에서 열리는 A매치에 뛰게 된 건 작년 9월6일 수원에서 치른 2007 아시아컵 예선 대만전 이후 처음이다.

박지성은 먼저 “홈에서 남미의 강팀과 맞붙게 돼 배울 것이 많을 것 같다”면서 “친선경기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루과이는 비록 독일 월드컵 본선에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많은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고 있어 좋은 경기가 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프로팀이든 대표팀이든 모든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부상으로 국내에서 대표팀 경기 있을 때 한동안 합류하지 못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면서 많은 것을 배운 만큼 우루과이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정규리그와 FA컵 등 계속되는 경기 일정과 장시간 비행으로 인한 체력문제를 걱정하자 “큰 문제는 없다. (이)영포 형에 비해서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속팀 맨유가 1998~1999시즌 이후 8년 만에 ‘트레블’(정규리그, FA컵,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3관왕) 꿈을 키우고 있는 것과 관련,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만 발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조경환 3안타 2타점 맹타

KIA, LG에 7-1 대승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가 2연승의 휘파람을 불었다.

KIA는 21일 마산에서 열린 LG와의 시범 경기 4차전에서 선발 전병두의 호투와 조경환의 맹타를 앞세워 7-1로 대승했다.

KIA 좌완 전병두는 이날 선발로 나서 4이닝동안 3피안타, 1볼넷, 2탈삼진, 1실점(비자책)으로 안정된 투구감을 뽐내며 선발 로테이션 진입 가능성을 높였다.

이어던진 임준혁(1.2이닝), 양현종(1.1이닝), 정원(2이닝) 등도 LG타선을 무실점으로 끝까지 막아냈다.

타선에선 주전 좌익수를 노리는 조경환이 적시 2타점 2루타 포환, 4타수 3안타 2타점

의 볼넷타를 휘둘러 강한 인상을 남겼다.

또 이종범, 손지환, 홍세완, 장성호 등도 나란히 멀티안타(2안타씩)를 기록하며 올 시즌 활약을 예고했다.

2승 2패를 기록중인 KIA는 광주에서 22~23일(삼성) 24~25일(두산) 시범경기를 치른다. 이밖에 롯데는 대구구장에서 선발 이상목의 호투와 이대호의 마수결이 홈런포에 힘입어 삼성을 5-1로 누르고 시범경기 4연승을 질주했다.

현대 대전에서 선발 장원삼이 4이닝동안 5안타 4실점으로 부진했지만 타선이 12안타를 집중시키며 한화를 7-4로 제압, 3연패의 사슬을 끊었다.

한편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예정이던 SK-두산 경기는 비 때문에 취소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승엽·이병규 무안타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과 이병규(33·주니치 드래곤스)가 일본프로야구 시범 경기에서 나란히 무안타로 침묵했다.

이승엽은 21일 도쿄 진구구장에서 벌어진 야쿠르트 스왈로전에 1루수 겸 4번 타자로 선발 출장, 3타수 무안타에 볼넷 1개를 얻는데 그쳤다. 이승엽은 3회 볼넷으로 1루를 밟았지만 나머지 타석에서는 삼진(1회), 1루 땅볼(6회), 좌익수 뜬공(7회)으로 물러났다. 이승엽은 7회 말 수비부터 투수 아이다 유지로 교체됐다.

2경기 연속 적시타를 터뜨렸던 이병규는 이날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전에 중견수 겸 톱타자로 출장했으나 4차례 중 단 한 번도 출루하지 못했다. 삼진(1회·7회), 3루수 뜬공(3회), 중견수 뜬공(5회)이 이날 성적표. 시범 경기 타율은 0.135로 약간 떨어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